

2008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사료값 인상이 계속된다??

산유국에서 공급감소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더니 머지않아 100달러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어 축산업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간 유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축산업자들은 육추기간 및 겨울철 등 가운을 위해 사용하는 석유나 가스 값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상승하는 것을 크게 염려했지만 이제는 곡물가격이 덩달아 뛰는 현상이 겹쳐져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 동안 생산되는 옥수수과 대두 등 사료원자재는 대개 식량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유가 상승과 대기오염 감소책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각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자 사료원료 가격은 폭등세로 돌아서 축산업은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이다.

사료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과거 '사료안정기금' 과 같은 가격 변동에 완충역할을 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마저 없어서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지난해는 연초대비 사료가격이 약 25~30%가량 인상되어 닭고기나 병아리 등 양계산물 생산비 구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성의 약 60% 이상 되는 사료가격은 축종을 떠나 범 축산업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아리의 생산원가는 수당 400원을 넘어가고 닭고기 생산원가도 kg당 1,300~1,400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래 제조업종은 원가상승이 이뤄지

면 곧바로 산물가격 인상분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이 떠 안는 것이 등식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산업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여 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기 때문에 생산비 상승은 곧 농가의 손해로 나타날 여지가 높아 우려가 된다.

이렇듯 원가상승은 양계농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인사육자의 경우 입추를 망설이기보다는 아예 포기할 수 있으며 이제는 닭값이 1,000원/kg 이하일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1. 종계 보유의 편중현상 심화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약 90%에 달하는 종계물량이 직 · 간접적으로 계열사에 분양됨으로써 반 년 이상이나 원가 이하의 병아리 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수가 넘는 종계가 분양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계열회사들은 닭 값이나 병아리 가격이 비록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형성될지라도 필요할 때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 모든 회사마다 필요 물량 이상의 생산 잠재량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병아리와 육계 생산은 항상 과잉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과잉은 곧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현재의 과잉생산은 가격하락과 함께 생산량을 감소시켜 또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논리의 신축성이 점점 사라져 가는 부작용을 실감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계열화 비중 증가로 인한 가격형성

지금까지 계열화 사업의 흐름을 돌이켜 볼 때 항상 불황을 겪고 나면 계열화의 비중이 한 단계씩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또한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불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특히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이 개인사육농가의 소멸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계약사육 비중은 높아질 공산이 높다.

이처럼 계열화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열업체

들은 적자경영을 벗어나 경영흑자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시중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닭 값 형성 분위기를 만들거나 생계시세를 아예 없애고 도계품 기준의 닭 값을 정착시켜 원가에 이윤을 붙이려는 노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닭 값은 생산원가의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계열사들은 병아리의 구매계약을 줄이기 위해 자체농장 증대 노력과 개인농가나 부화장으로부터 종란 구매계약을 늘리려 노력할 것이며, 개인농가들의 작년 후반기 후보종계 입추 보류로 인해 유통을 통한 병아리 판매물량은 미미해져 시중에서 느끼는 병아리의 수급물량은 많으면서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면서도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통계로 보는 2008년도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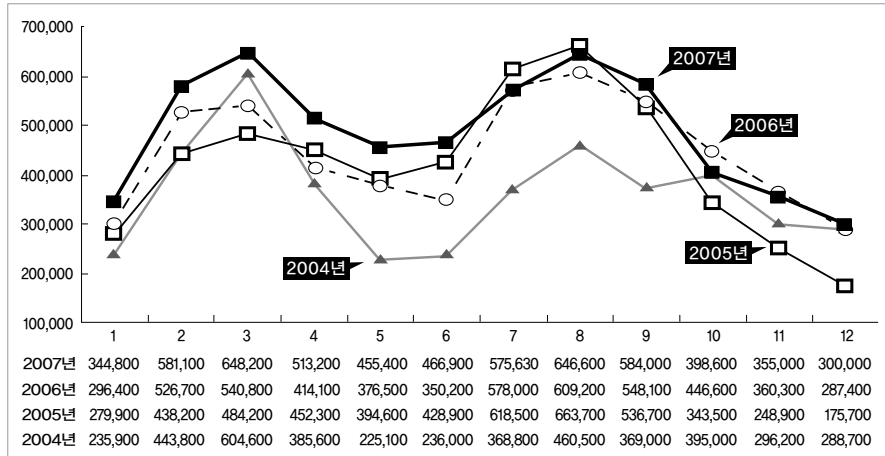
〈표 1〉, 〈표 2〉 참조

4. 과잉 분양된 종계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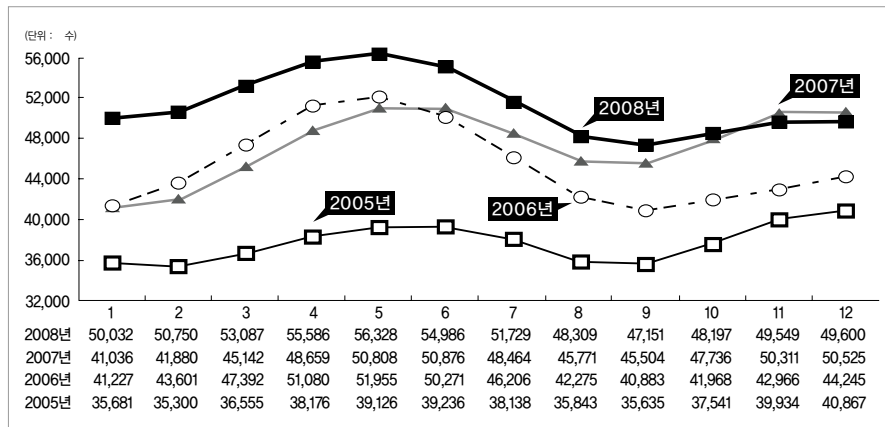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은 불황 속에서도 종계분양수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으로도 불황 속에 종계분양이 과잉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질병 등으로 인한 종

2008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계의 생산성에 문제가 없다면 출혈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음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5. 병아리 생산 동향

상기 〈표 1〉에서 보듯이 2007년의 육용종계 입식량은 약 550만수로 사상 최대치였으

며 2007년도 10월까지 극심한 병아리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에 분양된 일부 종계는 30주령대의 신계임에도 불구하고 도태된 경우가 있어서 지난 연말 병아리의 생산량이 단기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환우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환우 계군과 신계생산이 맞물리는 금



년 2월부터는 병아리 생산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경향은 금년 후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표 2>를 통해 볼 수 있다.

6. 조류인플루엔자

매해 겨울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발생 예방대책을 강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자 이래저래 닭고기 소비는 감소하여 이제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복병이 우리의 산업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이미 여러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가검물 의뢰가 줄을 이어왔음이 전해지고 있어 혹시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병한다면 기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닭고기 소비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다.

7. 출혈경쟁보다 새로운 소비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을 볼 때 계열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연간 약 400만수 이상의 종계가 분양되면 그 다음해에는 불황이 왔다고 오랜 경험을 통해 알려져 왔다. 계열화가 많이 진행된 최근 몇 년간은 닭고기의 소비확대보다는 생산량의 확대 결과

를 가져와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보다는 소비를 확대하여 우리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의 상황으론 우리나라 종계시장이 500만수 이상일 경우 안정된 시장이라기 보다는 불안한 다음 해를 걱정해야 한다. 좀더 노력하여 소비증가가 뒷받침 될 경우 종계규모 700~800만수 이상도 가능하리라 본다.

8.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작년의 종계 입식수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 더 많이 분양되었다. 수치만 근거한다면 금년에도 생산과잉의 조건은 이미 만들어진 셈이다. 병아리의 생산원가는 농가마다, 계군 마다 많게는 50%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황 속에 적자를 줄이고 호황 속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뿐이다.

특히 작년에는 계열업체들의 과잉 팽창경영으로 인해 수준이 떨어지는 종계장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단순한 종계숫자보다는 실질적인 병아리 생산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변수도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원가가 상승하고 수입량이 증가해도 경쟁력 있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 우리 육계산업은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2>